

전 교 주 일
연 중 제 30 주 일

기 도 서 465 면

제 1 독 서 : 예 레 31, 7-9
제 2 독 서 : 히 브 5, 1-6
복 음 : 마 르 10, 46-52

숲 정 이

발 행 천주교전주교구
편 집 흥 보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2

□ 강 론



앵 무 새

범 영 배 신 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사제의 파견사에 “천주께 감사”하고 미사 때마다 우리는 되새기고 있다.

신자의 사명이 복음전파 즉 전교라는 것을 항상 부르짖고 있지만, 앵무새가 배운말을 생각없이 웅얼거리듯 습관화 된듯하다.

전교주일 역시 교회에서 정한 행사일에 지나지 못하고 기껏해야 전교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사명인 복음전파를 포기하고 몇몇 사람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등한히 하고 있다.

복음전파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일임해서는 안되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또한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하고, 풍부한 교리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복음전파를 할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버려야 한다.

우리가 타교파의 사람처럼 남의 집을 일부러 방문해서 권면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없애버려야 한다. 복음전파의 시간과 일상생활을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생활을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야 한다. 성당에서 기도할 때만 복음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생활에서 복음을 뺄까쳐 버리고 살아 간다면, 우리의 사명인 복음전파는 요원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1 디모 1, 5)의 생활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미사 때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파견의 말씀을 듣고 앵무새처럼 “천주께 감사”라고 대답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 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이 쓸데없는 논쟁이나 교리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된 복음에 입각한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1 고린 9, 16)

(한들 본당 주임신부)



왜 모이는가?

-'82 교구평형 신앙대회

오늘은 전교주일이다. 한국 전교 200주년을 앞두고 전개하는 신자 배가운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몇사람이나 인도했는가? 파견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전교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도 연중행사의 한 날로 「전교주일」을 보내지는 말자. 과거와 현재를 보며 미래를 향한 다짐의 날로 삼자.

2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얼마나 자주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선포했는가! 20년 전, 바티칸 제2차 공의회 이후 세상을 보는 눈과 새교회를 꾸며가기 위한 자세 정립에 얼마나 애썼는가? 200년 조금 넘는 미국의 역사와 200년 조금 못되는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쯤 달리 생각하기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분석·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내일을 다짐해야 한다. 마침,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 교구 평형은 「'82 교구 신앙대회」를 연다.

'82 교구 신앙대회의 제1부 행사는 공부하는 모임이다. 신학을 전공하는 사제(김영환 대전신대 학장)가 「평신도 사도적 교령」을 해설하고, 일선에서 뛰는 평신도(원주교구 이경국)가 「평신도 사도적 운동」을 재조명해 본다.

제2부는 각 본당에서 지역 특산물을 봉헌하는 「미사」에서, 우리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께 평신도 사도적 책임을 다짐 한다.

제3부는 「우정의 모임」을 통해서 사도적 일선에서 뛰는 크리스찬의 형제애를 다짐한다.

또한 이번 모임의 특색이 전신자의 참여가 아니라, 사도적 일선에서 활동하는 일꾼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초청 받은 사람들은 핑계대지 말고 꼭 참여하여 우리를 새로이 가꾸자.

숲 정 이 산책



오늘은 전교주일
힘껏뛰십시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82년 전교주일 메시지 요약

전교주일을 맞이하여 선교에 관한 공동 목상을 위해 여러분 모두에게 본인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선교의 실천에 우리 모두가 투신함으로써, 복음이 전세계에 선포되고 온 누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게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교들의 책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까지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보편 명령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바로 주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주교들은 전교회의 선교 의무와 그 예정에 있어서 공동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주교를 주축으로 삼고 있는 모든 지역 교회 안에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것”(주교 11항)이라면, 당연히 지역 교회는 그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보편 교회 공통의 모든 활동을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사도들의 부족은 최우선의 선교 협안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특별히 복음의 봉사자와 사도들의 부족입니다.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부족하여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주교들의 복음화 과업을 추진하고 후원하는데 있어서, 비록 자기 교구에 성직자들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사제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방에 자기 교구의 사제들을 너그러이 파견하기를 권고합니다.

지역교회의 선교 의식 발전

친교와 협력은 가장 일반적인 선교의 실제입니다. 지역 교회 편에서 스스로를 폐쇄하거나 자신들의 문제라는 배타적인 한정된 영역에 집착하여 고립주의나 이기주의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되고나면, 강력한 선교 운동도 그 힘을 잃게 되어 모든 영성생활은 멸망의 불모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선교 협력은 체력과 활력의 나눔

협력이란 이제 더 이상 오랜 전통의 교회가 젊은 교회를 도와주는 ‘일방 통행’식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협력의 새로운 개념은 단순히 주는 교회와 단순히 받는 교회라는 두 개의 범주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부유한 교회, -가난한 교회”의 이분법을 극복하여 자매 교회들간의 형제적 친교 안에서 서로 가진 바를 나누고 그 활력을 풍부하게 교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호혜관계가 성립된다면 도움을 받는 가난한 교회는 주는 교회들만큼 더 부유하게 합니다.

본인은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이 세상 끝까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 모든이께서 구세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선교활동의 최전선에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는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본당사목 실습기(記)

민중 속의 신부님

이곳 월명동 본당서 벌써 2주째 생활해 오고 있다. 그런데도 얼마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매일매일이 바쁘게 보내지기 때문이라. 매일 한 번 이상은 꼭 있는 신심단체에 자리를 함께 하면서 주님에 대한 영신사정을 나누고, 본당신부님을 모시고 가정방문을 한달 동안 하면서 갖게되는 마음상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유있고 분별있는 반성상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지”하는 식으로 쫓기기만 하는 심란한 상태다. 매일매일이 영적 가난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내가 아닌 주님의 역량을 절실히 간구하게 될 뿐이다. 여러 신심단체에 참여해 보던서 그들에게 영신사정을 나눌 때마다 “나는 아직은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인데...” 하는 마음의 부끄러움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교형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려하면 나도 역시 이것을 필요로 하고 이래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자기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것은 ‘교형자매’는 물론 ‘내’게도 더욱더 필요한 것이 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란 절실함이 생겨난다.

아직은 수도삶의 초보자인 내가 활동중에서 주님을 관상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지만 그러는 중에서도 나의 이번 실습의 열매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일치해 있느냐는 그 깊이의 정도에 따라 영혼에 대한 사랑과 봉사가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생생하게 가슴을 채우고 있는 점이다.

이제 3주째에 들어가지만, 주어진 상황 안에 나를 집어 넣다가 보니 아직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본당사목이 내게 주는 체험을 깊이 반성해 보지 못했다.

수도원 안에서 살다가 본당이란 믿음의 ‘현장’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써도 이 현장이 내게 주는 것은 참으로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현장’에서의 사실과 체험들은 앞으로의 나의 신앙 삶에서 충동이 되고, 반동이 되고, 진실이 될 것을 확신한다.

깊은 반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가장 강한 인상으로 남는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본당신부님과 신자간의 사이에서 보게 되는 ‘민중 속의 신부님’에 대한 감동과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이요, 다른 하나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우울한 교형자매들의 삶의 모습과 그런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는 신앙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싶다. 이곳에서.

(예수회 수련자 송 토마스)

□ 안녕히 다녀오세요!

<성모 기사회 일본국
성지순례단>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666~8

해외여행 업무게시
국제여행 대리점 개설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
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
으로 기증함

보 석 장

군산경찰서 전복은행 앞
전화 ③ 6603
한 철 재(비오)

□ 사랑을 행동으로

사업내용 : 미혼부모상담 결연사업 국내입양
전주 영아원 직영(⑥ 4566)

당신은 1. 양부모가
2. 후원회 회원이 } 되실 수 있습니다.
3. 결연 후원자가

명동여관 사거리 전화 ⑥ 0880

홀트아동복지회 전북사무소



□ '82 교구 평협 신앙대회

1. 내 용 제 1부: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연수
제 2부: 사도직 세신을 다짐하는 미사(주교님 집전)
제 3부: 우정의 잔치
2. 참가대상: 1. 사도회 임원, 2. 공소회장, 3. 레지오 마리에·방지거 3회·중
고등학생회 임원, 4. 농민회·대학생·지오세·의사회·약사회원,
5. 주일학교 교리교사, 6. 중·고등학생회 지도자, 7. 푸르칠리스타
3. 일 시: 10월 3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4. 장소: 해성 중·고 대강당
5. 중앙성당에 소속된 참가 대상자는 전진식이 끝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금요 성경 강좌

1. 목 적: 누구나 성경을 쉽게 알아 듣고 하느님 말씀과 친숙해지도록
2. 방 법: 강의, 기도, 대화(질문), 슬라이드 3. 강 사: 교육국장 박 중신 신부
4. 시간·장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9시, 가톨릭 센터
5. 지참물: 신·구약 합본성경, 공동체 성가집, 붉은 볼펜
6. 접 수: 센터 사무실(전화 신청 문의 0041·0042)
7. 인원이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의료보험 조합 설립 동의서 서명전

금번 본 교구에서는 성직자, 수도자, 신자 및 예비신자들의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 2종 의료보험조합을 설립,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려고, 신자(세대주)들의 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신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인장(도장)을 치장, 본당과 각 공소에 가셔서, 10월 30일까지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 오룡동 본당 공동체의 날 축제

82년 본당 공동체의 해와 10월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오룡동 본당은 지난 17일 군산 중학교 교정에서 본당의 성장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신자 상호간에 일치와 발전을 다짐하고, 지역 사회 안에 본당의 모습을 소개하는 간접신교를 위해 축제를 마련하였다. 제1부 주교님 집전의 미사, 제2부 운동회로 행사가 진행 되었고, 5백여명의 신자가 참가하였다. 많은 외곽 교우 가족들도 참석하였는데 완벽한 준비와 질서있는 진행으로 본당 공동체의 일치를 잘 들어냄으로써 화기에애한 가운데 그리스도 공동체의 면모를 증거하였다.

□ 본당 사도회 및 교구 단위 단체 회장단, 연수회 갖고 '82 교구 평협 신앙대회에 적극 참여키로

교구 평협(會長 양 상렬)이 주관한 회장단 피정 겸 연수회가 지난 16,17 양일간에 걸쳐 가톨릭 센터에서 있었다. 31개 본당과 2개 단체에서 참석한 40여 회장단은 첫날에 십자가의길·목상·영적독서·강론을 통해 짧은 피정을 갖고, 평신도 봉사자(지도자)의 영성생활과 교육에 대한 대화를 통해 평신도 사도직의 현안문제를 다루었다. 둘째날은,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져 「'82 교구 평협 신앙대회」와 교구평협의 재정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장단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82 교구 평협 신앙대회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점심 시간은 본당단위로 갖기로 했다. 이 연수회를 위해 사무국장 유 장훈 신부가 특강을, 사무처장 황 인규 신부가 파견미사를 봉헌했다.

요심이 (481) 김병오

장기집권하기 위해
딱벌데 백골단을
동원하고

긴급조치9호를
만든분도
있는데

수상감투를 마련없이
벗어던진사람이
있으니

그사람혹시 정신이
돈것이 아닐까...?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터

질에서나 값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니다.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윤(베드로) 종선

실내장식·조경·가옥수리
건축일절·페인트

화석 인테리어

전화 ④ 0265

이종화(바오로)

김병석(스테파노)

독일제 치질약
에이널 좌약 입학

사마귀 제거약
베루말 재입하

시민약국

4-0009·4-3338

약사 김병의(마티로)

금·은·보석·시계는

금보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영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주단·포복(훈수·희갑옷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핑크)카펫지
도매상

서울주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1. 제 2 지구 울드레야 정기총회: 일시-24일(일) 오후 2시, 장소-오동동 천주교회
 2. 중·고등학생회 지도자 모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사업을 위한 보다 계획적인 폭 넓은 대화를 갖고자 합니다. 일시-26(화) 오후 7시 30분, 장소-센타 3층 평협 사무실
 3. 전주지구 M·E 소개의 밤: 30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센타 회의실
 4. '82 교구 평협 신양대회: 3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해성 중·고 대강당, (3년 기사 참조)
 5. 금요일 성서 강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9시, 접수-센타 사무실
- 축! 영명일: 28일-성서문 박 중신, 한 봉섭 신부님

(중앙)

전화 ①7111~3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한기훈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박인협

- ◎ 성경읽기: 에베소서 4장~6장, 신명기 6장
1. 프란치스코 삼화: 오후 2시 강당
 2. 견진성사: 신청 않으신 분 오늘까지 신청해 주세요
교리-26~30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강당
 3. 새로 전화 받으신 분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4. "베소라성서 연구" 개설:
장소-중앙성당 강당, 일시-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9시, 개강-11월 19일, 강사-김정원 신부
교재대-월 2000원,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5. 연도대회: 11월 7일 오후 2시
참가대상-전신심단체 및 중·고생
성인-임종경, 중·고생-연도
 6. 11월 2일 위령의 날: 저녁 7시 30분에 합동연도 있음
 7. 새 성당 신축현금회 협조해 주신 분(다음주에 발표)
- 지난주 봉헌금: 669,415원 교무금: 1,038,856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수.사 ②705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각 분과위원 증원: 각 위원장님께서는 10명씩 선정하여 31일까지 명단 제출하세요
 2. 미사시간 안내: <월>·<수>-오전 6시, 오후 6시 30분
<화>-오전 10시 30분(어머니), 오후 6시 30분. <목>-오전 6시, 오후 4시(아파트). <금>-오전 6시, 오후 4시(기도회). <토>-오전 6시, 오후 4시(주일 특전 및 아파트). <일>-오전 6시·9시(학생미사)·10시 30분(공식미사), 오후 2시(어린이), 6시 30분
 3. 혼인성사 받을 분: 1개월 전에 접수하여 주세요
 4. 대학원 모임: 매주 <수> 오후 7시 30분 변경합니다
 5. 금주의 성경읽기: 사도행전 전체
 6. 특별헌금: 중노2가 박세욱씨 3만원, 감사합니다
 7. 차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은경순, 독서-①서요한 ②박민숙
공식미사: 해설-김영옥, 독서-①박종길 ②김규배
저녁미사: 해설-박은경, 독서-①이종관 ②김규연
기도봉헌: 공식미사-문명식·양광식
- 지난주 봉헌금: 336,285원 교무금: 124,0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김봉현
보좌 신부 임문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은 주일학교 소풍날: 많은 어린이들 보내주세요
 2. 부녀회 릴레회의: 어머니를 참석하세요
 3.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모두 전교회에 가입합니다
일반회원 500원 이상, 특별회원 2,000원 이상, 어린이회원 100원 이상, 사무실에 가서 접수
 4. 본당신부님제 친목단체 체육대회(진부회, 반석회, 청년회, 동성회)
배구, 율놀이(척사대회), 11월 7일-공식미사 후
 5. 11월은 위령성월: 선영들을 위해 봉헌 합시다
 6.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날 대축일입니다
오전 6시 합동미사 봉헌합시다, 오전 6시, 저녁 7시
 7. 다음주 진복회: 월례회의
 8. 혼배성사 하실 분 1개월 전에 신부님과 면담 바람
- 지난주 봉헌금: 522,380원

(복자)

전화 ⑤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11월은 위령성월
2. 11월 1일(월):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1일~8일까지 묘지 참배, 성당에서 기도하므로 연령

들에게 전대사를 받도록

3. 11월 2일 위령의 날: 미사후 공동으로 연도 바침
 4. 사도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보미사반 소풍: 30일(토) 오후 1시, 치명자산
 6. 가정방문: 26일(화)-중앙동 2반·고사동 1반, 28일(목)-고사동 2·3반, 29일(금)-완산동, 11월 2일(화)-화산동 1·2반, 4일(목)-대평동 1·2반, 5일(금)-대평동 3·4반
 7. 오늘은 전교주일(특별헌금)
 8. 금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정동민 ②정진협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고희구
- 지난주 봉헌금: 391,355원

(서학동)

전화 ②272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신양대회: 31일(일) 각 단체 임원 및 지도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장소-해성 중고 대강당
 2. 가정방문: 26일~27일(화·수) 12반, 29일(금) 11반
 3. 할머니회 친목나드리: 일시 11월 3일(수)
장소-내장산과 백양사, 회비-3천원 도시락 차함
 4. 전례담당: 독서-①김나섭 ②강기호
- 지난주 봉헌금: 238,150원 교무금: 154,5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성령기도회: 매주 금요일
 2. 예비자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전 9시와 오후 7시 30분 ※미린교무금 납부
 3. 금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김영철·남상룡,
기도-김남곤·이규철
차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①박병열 ②이원일
기도-김수걸·이은자
 4. 미사참례자 안내
금주-김정숙·신순영·문명희·권춘자·최옥주
차주-정공순·이정숙·나홍덕·육누시아
- 지난주 봉헌금: 430,730원

(전동)

신부 ①6208

전화 사무 ③2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본당신부님 일본 성지순례: 팔베신부님 시성 기념식 참가차,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엘리자 헤례회: 24일 오후 1시 30분 피정 연기
 3. 예배신자 매월 모임: 수요일반-저녁 7시, 주일 아침반-공식미사 후, 주일저녁반-저녁미사 후, 중·고생반-토요일 오후 3시 30분
 4. 매주 공식미사 후 영세예정자와 영세한 자에 대한 양현홍(이레네오) 선생님의 성서 강의를 있습니다.
 5. 주일학교 어린이 평일미사: 월-1학년, 화-2학년, 수-3학년, 목-4학년, 금-5학년, 토-6학년
 6. 중·고생 성가경연대회: 25일부터 연습, 저녁미사후
 7. 성령 기도회: 7일 오후 7시 강당
- 지난주 봉헌금: 570,91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전화 수녀 ②4804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황희상

1.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전교를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봉헌합시다
어린이 봉헌금은 어린이 전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2. 다음주일 어린이 소풍: 대상-교리반 어린이
 3. 제 1회 교구 신양대회: 3년 참조 바람
 4. 축! 결혼: 일시-오늘 11시 30분
신랑-강택수(안산동), 신부-최남순
- 지난주 봉헌금: 199,101원 교무금: 168,000원